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부흥    제목: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

성경:누가복음 11장9-13절

9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11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12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13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눅 11:9-13)

기독교의 진리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다. 여기에서 인격적이라는 말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다. 또한 여기에서의 인격적이라는 말은 물리적이거나 자연적인 것과 반대가 되는 ‘지정의’를 가진 한 사람으로서의 인격적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타종교는 진리를 기독교에서 표현하는 인격적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타종교에서는 인격과 관련되는 주제는 철학적 원리로서 다루거나 윤리나 도리, 사람으로서 가져야 하는 태도에 대해서 주로 다룬다.

그러나 기독교에서의 인격적이며 관계적이라는 말은 인격적 존재 끼리의 친밀감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이 친밀감은 단순히 알고 지내는 수준이 아니라, 얼마나 서로 이해하고 다정하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지, 아무런 대가도 없이 희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깊게 다룬다. 두 사람 사이에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태도나 말투나 예절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지 않는다. 결코 예절이 무시되지는 않지만, 결코 강조되지도 않는다. 즉, 중심주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친밀감이나 사랑하는 것과 주고받는 대화나 거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 자체가 이런 인격적이고 관계적인(비물리적인) 것을 무시하고는 설명되거나 이해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도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말씀을 풀어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너희가 필요한 것을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이다. 단어를 자세히 살펴 보면 인격적이거나 관계적이지 않는 단어는 하나도 없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 말씀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씀이 된다.

뒤에서는 추가적으로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해야 주시는 것일까? 꼭 구해야만 하는 것일까?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렇다면 미리 미리 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선 구하지 않아도 주시는 것이 있긴 하다. 그것은 의식주와 관계된 것이다. 의식주는 우리가 굳이 구하지 않아도 주신다.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까 하지 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  
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마6:31-32)

만약 의식주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사람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께 구하기 보다는 상담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정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뜻이다.

정말로 그것을 원하느냐? 네가 간절히 그렇게 하기 원하느냐?

너 꼭 그것을 갖기 원하느냐?

마귀가 이렇게 방해할 터인데도 너는 그렇게 하기 원하느냐?

네 앞에 산이 막혀 있는데도 그 산을 넘어가기 원하느냐?

너에게는 이러저러한 저주가 있는데도 그렇게 하기 원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네가 오른쪽을 선택하면 왼쪽으로 갈 수 없는데 그렇다면 왼쪽은 포기하는 것이니?

-네 제가 오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왼쪽은 포기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구하는 것을 주신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구하는 것을 주신다. 조금 구하다가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포기하는 것은 주지 않으신다. 자기가 구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거기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다. 그것에 대한 충성도 필요하다. 그것을 위한 희생도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구하는 것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는 부흥을 간절히 원한다.

두 번째는 그 구하는 것을 찾아야 한다. 이것은 단순한 반복 강조가 아니다. 찾아야 한다는 것은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네가 그것을 구하면 내가 줄 것이니 찾아보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바를 바로 주시지 않으신다. 어떤 것은 쉽게 어떤 것은 어렵게 찾을 수 있다. 연구해야 한다. 조사해야 한다. 현장에 가 보아야 한다. 실제로 작동시켜 보아야 한다.

사람은 간사하기도 하고, 조심스럽기도 하고, 까탈스럽기도 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

나는 컴퓨터를 좋아한다. 그러나 최초의 컴퓨터는 화려한 윈도가 아니었다. 검정 화면에 하얀 C:>(부등호, 거꿀가랑이표, 큰말표), 그리고 커서만 깜박이고 있었다. 며칠간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는수 없이 책을 읽어야 했다. 명령어를 익히고 컴퓨터의 원리와 구조와 작동 순서와 전혀 관심도 없지만 반드시

배워야 하는 백업이니, 하드디스크 정리니, 램 용량 관리니 하는 것들을 연구해야 했다.

함께 컴퓨터를 배우는 친구들 중에는 포기하는 자들이 속속들이 등장하였다. 그러나 나는 꾸준히 조금씩 배워 나갔다.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꾸준히 연구해야 한다. 연구를 통해서 그동안 인류가 그쪽 방면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를 배운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찾게 되었는지를 배운다. 배우는 과정을 통해서 나는 엄청난 시간을 단축시킨다.

연구하면 배운다. 찾으려면 찾는다. 세상은 얼마나 다양한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는 무궁무진하다. 흥미진진하다.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이렇게 원하는 것을 구하고 찾으면서 인생은 앞으로 전진한다.

하나님의 부흥도 연구해야 한다. 언제 부흥이 있었는지, 왜 부흥이 그쳤는지, 부흥이 오면 무엇이 좋은지, 앞으로는 어떤 부흥이 와야 하는지를 연구해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종말을 연구하는데 나는 부흥을 연구한다. 왜냐하면 부흥이 훨씬 현실적이고 강력하고 흥미진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렇게 찾다가 보면 커다란 문에 도달하게 된다. 그리고 대부분 그 문은 굳게 닫혀있다. 그리고 나는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다. 그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으면 어떤 사람들은 들어가는 것이 보인다. 부럽다. 나도 들어가고 싶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는다. 과연 이 문이 무엇인지, 이 문을 들어가면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누가 들어가는지,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 연구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대부분은 자존심을 버리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두려움을 버리고 문을 두드려야 한다. 수없이 거절을 당해도 또 문을 두드려야 한다.

관계자를 사귀어야 하고, 관련된 법을 공부해야 하고, 자격이나 권리를 얻어야 한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만 그 권리를 누리려고 어떤 저런 이유를 들어 문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두드려야 한다. 열어달라고 간청해야 한다. 협상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댓가를 요구할지도 모른다. 싸워야 할지도 모른다. 어찌되었든 그 모든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편이 되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신다.

특히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구할 때 성령을 주시면, 성령께서는 무엇을 구해야 할지 알려 주신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라, 우리가 무엇을 연구하면 그 답을 알려 주신다.

성령은 감화하는 영이시라, 우리가 문을 두드리면 문지기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문을 열게 하신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전도    제목:교회조직을 통한 협력전도    말씀:요한복음 1장45-51절

45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를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46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48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49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5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하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51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요 1:1-51)

교회조직을 통한 협력전도도 효과적이다.

교회에 이미 존재하는 자원들을 통해서 전도에 활용하는 것이다.

교회의 자원이란 크게는 물리적 자원과 영적자원이 있다.

물리적 자원이란 건물을 비롯한 시설들이다. 물리적 자원을 통한 전도가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물리적 자원도 영적 자원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유럽의 교회)

-영적 자원의 핵심은 성령운동이고, 성령운동의 핵심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을 성령충만으로 인도하는 것도

전도.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교역자가 가장 핵심적인 영적 자원이다.

교역자의 분업과 협력이 중요하다.

교역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참신한 계시력이다.

-전통적이면서도 항상 최신의 데이터를 지향해야 한다.

교역자에게 있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카리스마다.

교역자에게 있어서 세 번째는 성품이다.

예배가 두 번째 핵심적인 영적 자원이다.

-예배가 전도 지향적이어야 한다.

-구도자에게 평안함과 편리함과 매력을 주어야 한다.

-예배는 잘 연출된 퍼포먼스와 같다.

셀모임이 세 번째 핵심적인 영적 자원이다.

-셀모임에서는 리더와 헬퍼의 협력이 핵심이다.

-셀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가 증거된다.

-새로운 사람들이나 연약한 사람들이 자기에게도 같은 은총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교역자가 감당할 수 있는 것

-평신도가 말하면 효과가 떨어지거나 사라지는 것들.

-평신도가 전문적으로 행할 수 없는 것.

-코칭, 예언, 사도적이고 예언적 기름부음

-안드레 전도, 사마리아전도, 홍숙경 전도.

평신도가 감당할 수 있는 것

-교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물리적인 위치 안내.

-시간과 장소, 분위기, 규칙등을 전달하는 것.

-교역자를 만나는 방법과 사전 교육

-자신이 직접 경험하면서 얻었던 은혜를 나누는 것.